

열린의정 ! 으뜸의회 !

---

## 2016년도 군의회 국외연수보고서

---

□ 국외연수 개요

- 기 간 : 2016. 3. 4.(금) ~ 3. 12.(토) 【7박 9일】
- 방 문 국 :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 인 원 : 15명(의원8, 직원6, 집행부1)



**임실군의회**



# 목 차



I. 연수개요 .....	1
II. 방문국 개요 .....	5
III. 주요방문지별 수행사항 .....	11
1. 프라하 / 체스키크롬노프 .....	6
2. 비엔나 .....	13
3. 부다페스트 .....	15
4. 플리트비체 .....	19
5. 블레드 .....	21
6. 할슈타트 / 잘츠부르크 .....	23
7. 로텐부르크 .....	26
IV. 시사점 .....	27
V. 정책제언 .....	30
IV. 연수후기 .....	34

# I. 연수개요

## 1 연수목적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활용한 종합레저타운으로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진기관의 우수시책 연구조사 및 현장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 문화유산 도시의 고전건물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역을 탐방하여 마케팅전략, 소재 발굴 등 우리군 관광문화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연수현황

- 방 문 국 : 동유럽 6국
  - 체 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 일
- 연수기간 : 2016. 3. 4(금) ~ 3. 12(토) 【7박 9일】
- 연 수 자

연번	직위(급)	이름	연번	직위(급)	이름
1	의 장	문 홍 식	9	의회사무과장	박 세 민
2	부의장	신 대 용	10	의사팀장	홍 충 의
3	의회운영위원장	이 성 재	11	전문위원보좌	한 송 희
4	산업건설위원장	장 종 민	12	의사팀원	문 정 란
5	의 원	진 남 근	13	의사팀원	김 학 석
6	의 원	문 영 두	14	의사팀원	양 병 성
7	의 원	김 왕 중	15	홍보팀장	신 영 란
8	의 원	유 정 금			

## 3

## 연수 세부일정

일 자	방문지	일 정	비 고
3/4 (금)	인천 프랑크푸르트 (독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체코 헤프로 이동 (4시간 30분 소요) 후 투숙	
3/5 (토)	프라하 (체 코)	·조식 후 프라하 이동 (2시간 30분 소요) ·문화유적지 및 도시경관 시찰 -프라하성, 바츨라프 광장 등 -트램 체험, 프라하 야경 탐방	
3/6 (일)	체스키크롬노프 (체코)  비엔나 (오스트리아)	·조식 후 체스키크롬노프 이동 (3시간 소요) ·문화유적지 및 도시경관 시찰 -체스키크롬노프성 및 망토다리 ·비엔나 이동 (4시간 소요) ·문화유적지 및 도시경관 시찰 -셴부른 궁전, 슈테판 성당 등	
3/7 (월)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동 (3시간 소요) ·기관방문 : 국회의사당 및 시청 방문 ·기관방문 : 쓰레기 소각장 및 발전소 방문	
3/8 (화)	플리트비체 (크로아티아)	·조식후 플리트비체 이동 (7시간 소요) ·문화유적지 및 자연자원 시찰 -국립공원 플리트비체 환경보호시설 견학 및 탐방 등	
3/9 (수)	블레드 (슬로베니아)	·조식후 블레드 이동 (6시간 소요) ·기관방문 : 블레드 호수 관리국 방문 ·기타 블레드 성 및 블레드섬 시찰	
3/10 (목)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조식 후 할슈타트 이동 (3시간) ·기관방문 : 잘츠부르크 주정부 방문 ·현지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유산 시찰 -시가지 모차르트 생가, 호엔잘츠부르크성 등	
3/11 (금)	로텐부르크 (독일)  프랑크푸르트	·조식 후 로텐부르크 이동(5시간 소요) ·문화유적지 및 도시경관 시찰 -로텐부르크시청, 야콥교회,마르크트광장 등 ·중식 후 프랑크푸르트 이동(2시간 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18:30)	
3/12 (토)	인 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12:40)	

## II. 방문국 개요

### 1 체코

#### □ 일반현황

정식국명	체코 공화국
수 도	프라하
면 적	78,864km <sup>2</sup> (한반도의 1/3)
인 구	1,063만 (2014년 기준)
언 어	체코어
종 교	가톨릭(39.2%), 개신교(4.1%), 무교(40%) 기타(16.7%)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 내각책임제, 국회 양원제

#### □ 지도



## 2

# 오스트리아

### □ 일반현황

정식국명	오스트리아 공화국
수 도	빈(Vienna)
면 적	83,871km <sup>2</sup>
인 구	847만명(2013년 기준)
언 어	독일어
종 교	로마가톨릭교(84%), 개신교(4.7%), 이슬람교(4.2%)
정치체제	의원내각제에서 변형된 대통령제, 양원제(의회)

### □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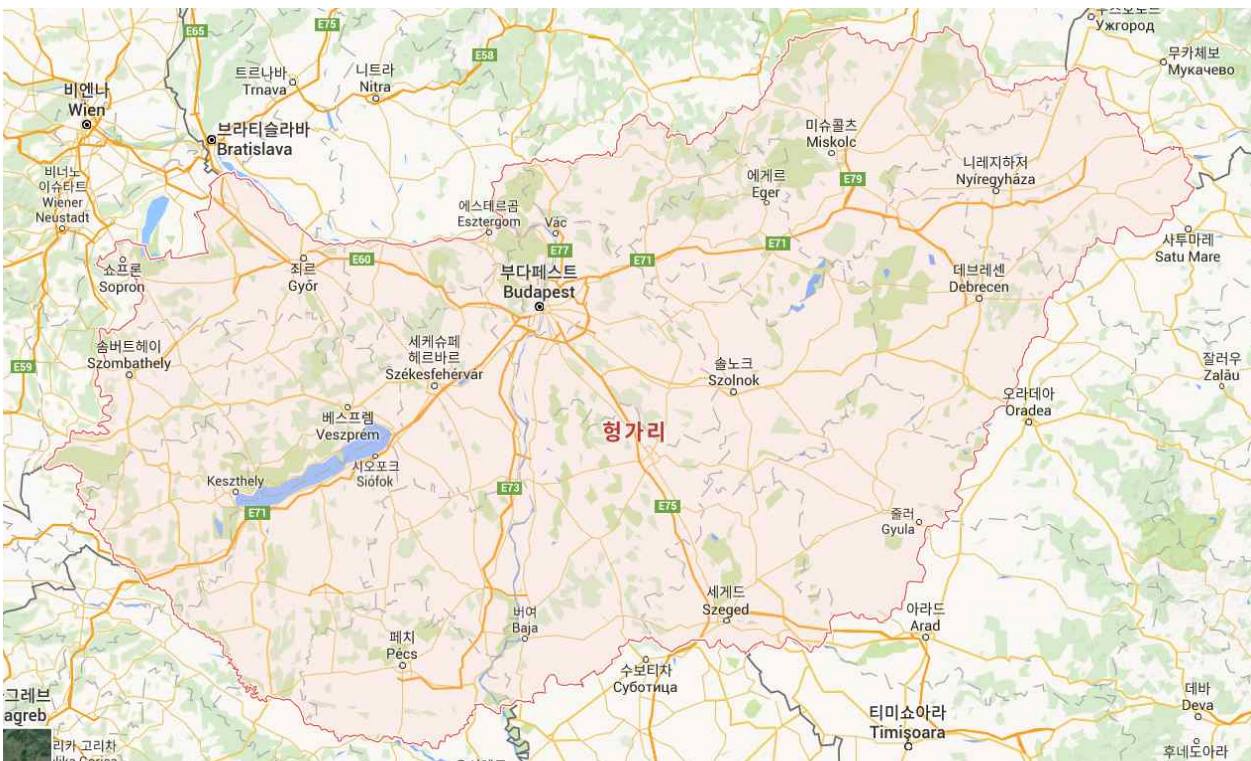
# 3

## 헝가리

### □ 일반현황

정식국명	헝가리공화국
수 도	부다페스트(Budapest)
면 적	93,030km <sup>2</sup> (남한면적과 비슷함)
인 구	989만 (2013년 기준)
언 어	헝가리어(마자르어)
종 교	가톨릭(67.5%), 신교(20%), 그리스 정교 등
정치체제	의원내각제(정부), 단원제(의회)

### □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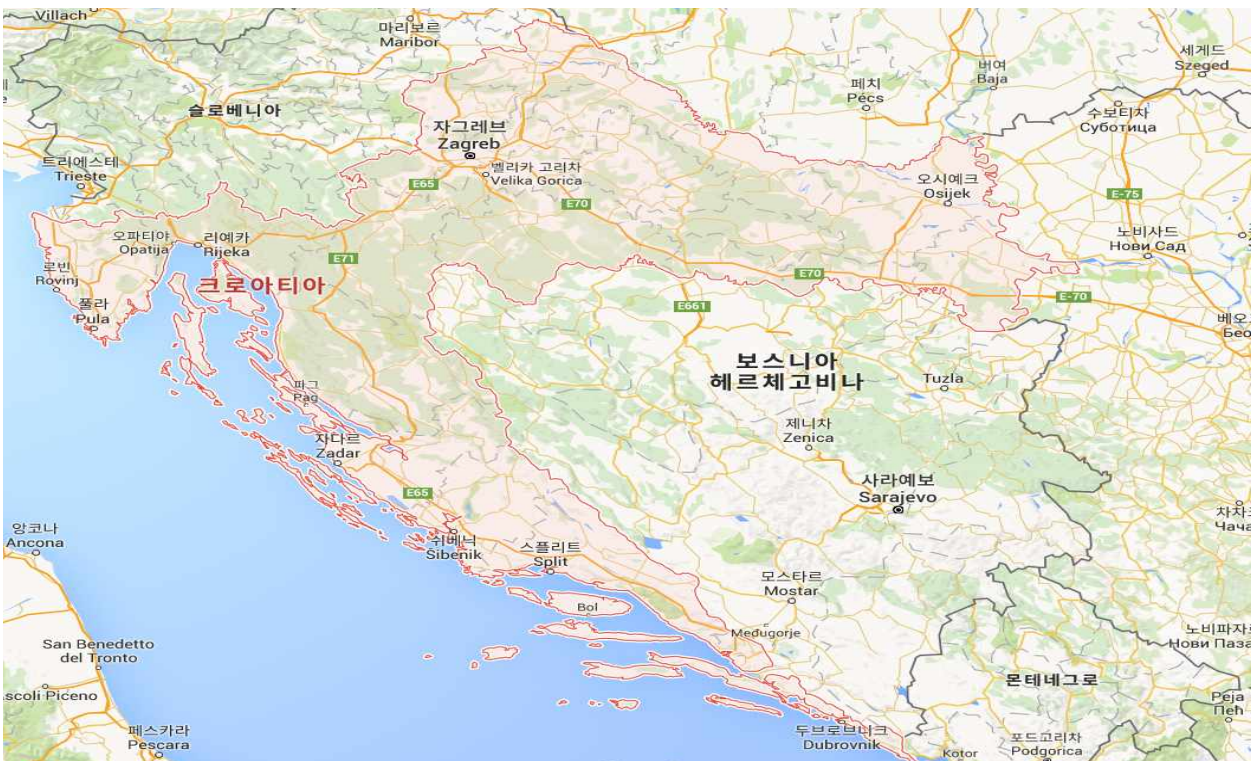
# 4

## 크로아티아

### □ 일반현황

정식국명	크로아티아공화국
수 도	자그레브
면 적	56,594km <sup>2</sup>
인 구	약 425만명(2013년)
언 어	크로아티아어(공용어)
종 교	로마가톨릭교(87.8%), 기타(12.2)
정치체제	의원내각제(정부), 단원제(의회)

### □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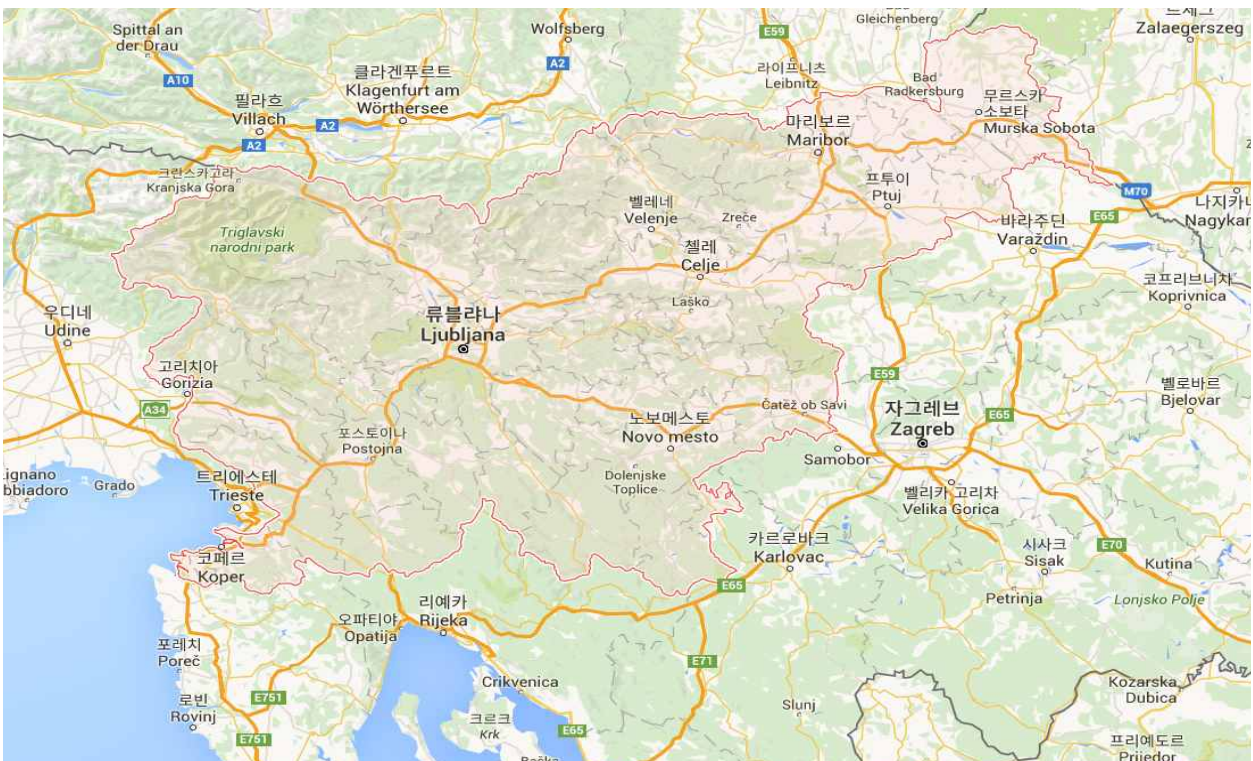
## 5

## 슬로베니아

## □ 일반현황

정식국명	슬로베니아공화국
수 도	류블랴나
면 적	20,237km <sup>2</sup>
인 구	206만명(2014년 기준)
언 어	슬로베니아어
종 교	로마가톨릭교(57.8%), 무교·기타(37.5%)
정치체제	중앙집권공화제(정부), 다당제, 양원제(의회)

## □ 지도



## □ 일반현황

정식국명	독일연방공화국
수 도	베를린(약340만명)
면 적	357,121km <sup>2</sup> (한반도의 1.6배)
인 구	8,059만명(2013년 기준)
언 어	독일어
종 교	신교(31%), 구교(32%), 이슬람교(4%), 무종교(33%)
정치체제	의원내각제(정부), 양원제(의회)

## □ 지도



### Ⅲ. 주요 방문지별 수행사항

#### 1 프라하 및 체스키크롬노프(체코)

##### □ 주요 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답사

###### 프라하성

-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블타바 강의 서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성으로 프라하의 초기 역사부터 존재해 왔으며 프라하의 상징이자 체코의 상징임.
- 프라하성은 9세기 말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요새로 만들었으며, 천년동안 왕들이 통치하였던 왕궁은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고 있으나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음. 9세기 중엽에 건축된 후 16세기 말까지 보헤미아 왕가의 궁전으로 사용되었다고 함.

###### 까를교

- 블타바 강을 건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까를교는 길이 520m, 폭 10m로 1357년 7월 9일 5시 31분에 완공되었는데 그 의미는 서양식 날짜표기법으로 써보면 알 수 있다. 즉, 135797531로써 홀수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조합이 나타난다.
- 516m의 길이에 16개의 기둥과 3개의 브릿지 타워가 소재. 구시가지 브릿지 타워는 많은 조각상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브릿지 타워로 꼽힘. 바로크 시대(18C)에 만들어진 30개의 조각상이 다리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조각상은 Matyas Braun과 E. M. Brokoff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

## 황금소로 및 구시가지

---

- 황금소로는 프라하 성에서 불타바강과 시내경관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다 보면 나오는데, 동화에 나올법한,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길임. 성벽 아래 근위병이 있던 곳인데 연금술사와 금 세공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조성된 작은 거리로 지금은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열대 여섯 개 늘어서 있음
- 프라하 화약탑에서 카를교 탑까지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시대별 건축 양식의 변천사가 아름답게 물결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명소로 불타바 강 오른쪽 지구인 '구 시가광장'에 있는 구 시청사는 전형적인 고딕양식의 건물로, 건물 벽에 붙어 있는 천문시계가 유명하며, 관광객들의 제1순위 방문지역임.

---

## 체스키크롬로프 성

---

- 13세기에 세워진 체스키크롬노프 성 외에 300여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유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18세기 이후에 세워진 건물이 거의 없는 중세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역사지구
-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며, 고딕 양식의 최초의 성은 13세기 전반 영주의 명으로 불타바 강이 내려다보이는 돌산 위에 건립. 14세기 들어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르네상스 양식의 호라테크를 증축하였고, 16세기에 지붕의 둥근 탑과 회랑 등을 증축함. 1680년대에 에겐베르크 가문의 요한 크리스티안 1세가 바로크식으로 성을 개축하였고, 뒤를 이어 슈바르젠베르크 가문의 후손들이 성을 수리. 1950년 체코정부가 성을 인수하여 일반인들에게 성 내부를 공개.

### ◇ 시사점

- ⇒ (관광정책) 풍부한 역사유적 활용, 휴일 참여프로그램 다양화, 주변국과 연계한 대외 관광홍보
- ⇒ (도시정책) 역사문화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자발적 단체의 참여와 국민적·시민적 합의를 통해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추구

## 2 비엔나 (오스트리아)

### □ 주요 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답사

#### 헨부른궁전

- 17세기 초 마티아스 황제가 아름다운 샘을 발견하면서 '아름다운 샘'을 뜻하는 헨부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오스만투르크군에 의해 원래 있던 성이 파괴된 후 1696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새로운 성을 만들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바로크 양식의 최대 건축가 피셔 폰 에를라흐가 설계를 맡았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18세기 중엽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에 완공되었다. 헨부룬 궁전은 길이가 180m이고, 외벽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좋아한 짙은 황금색으로 칠했다. 내부에는 1441개 방이 있고, 넓은 부지 안에는 마차 박물관, 궁전 극장, 식물원, 동물원, 정원 등이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그녀의 남편인 황제 프란츠 1세는 헨부룬에서 여름을 보냈으며 그들이 통치하던 시절 여섯 살 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궁전에 초대받아 여제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헨부룬에서

1830년 출생했으며 여든여섯의 나이로 이곳에서 죽게 된다. 현재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용했던 23개의 방과 프란츠 요제프가 사용했던 25개의 방, 총 48개의 방만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

## 게른트너 거리

---

- 국립 오페라 극장부터 슈테판 성당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보행자 전용 도로이며, 길이가 600m에 이른다. 1974년 오스트리아 Garinthia(Karnten)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거리로 꼽힌다. 도로 양쪽에는 선물용품점과 액세서리점, 부티크, 레스토랑, 카페가 늘어서 있다.

---

## 슈테판성당

---

-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양식 건물로서, 1147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설을 시작하였고, 1258년 빈을 휩쓸었던 대화재로 전소되었다가 1263년 보헤미아 왕에 의해 재건되었다. 1359년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을 헐어버리고 고딕 양식으로 개축하였고, 1683년에는 터키군, 1945년에는 독일군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복구를 시작하여 대부분 옛 모습을 찾았다. 성당 이름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성인(聖人) 슈테판에서 딴 것이다. 옛 건물이 가득 들어찬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다. '빈의 혼(魂)'이라고 부를 정도로 빈의 상징으로 꼽힌다. 공사기간이 65년이나 걸렸으며 건물의 길이가 107m, 천정 높이가 39m에 이르는 거대한 사원이다. 높이 137m에 달하는 첨탑과 25만 개의 청색과 금색 벽돌로 만든 화려한 모자이크 지붕이 눈에 띈다. 보헤미아 왕이 세웠던 '거인의 문'과 '이교도의 탑'도 남아 있다. 건물 내부에는 16세기의 조각가 안톤 필그람이 만

든 석조 부조의 설교대와 15세기 말에 만들어진 프리드리히 3세의 대리석 석관이 있다. 그밖에 마리아와 예수상이 있고,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이 매우 아름답다. 지하에는 1450년에 만든 지하유골 안치소 카타콤이 있는데, 페스트로 죽은 사람의 유골 약 2,000구와 합스부르크 왕가 황제들의 유해 가운데 심장 등의 내장을 담은 항아리 및 백골이 쌓여 있다. 모차르트의 결혼식(1782)과 장례식(1791)이 치러진 곳이며, 빈 시민들은 매년 12월 31일 슈테판대성당 광장에 모여 새해를 맞는다.

#### ◇ 시사점

- ⇒ (관광정책) 각종 문화재들의 관리 및 보존을 철저히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공개하여 그들의 역사를 함께 공유, 건축예술가 작품의 세계적 관광자원화
- ⇒ 오랜 역사문화에 걸맞게 전통 수공으로 크리스탈(슈바로브스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내 지역의 특산품을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어 낸 장인의 정신을 엿 볼 수 있었음
- ⇒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건축가의 독특한 생각을 수용하고 실현한 비엔나 시의 자세도 배울 점

### 3 부다페스트 (헝가리)

#### □ 기관방문 : 부다페스트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

- 부다페스트시에서 운영하며, 1982년 신축이후 2005년 리모델링하여 현재 소각로 4기로 1주일 1,200톤 이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열소각하며, 쓰레기 소각에서 재생 에너지화 되는 자동화 과정이 특징임

- 헝가리의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지정폐기물 소각장 1개소 존재함
- 지자체 매립지의 85%가 폐기물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미달 매립지 폐쇄 또는 재정비 필요
- 3,200개 마을단위 소규모 폐기물처리장(small waste dump)을 중단위로 묶어 70개 지역매립장 건립 계획이 있음
- 이 소각장은 발전소 시설과 함께 있어 바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연계시스템을 갖춰 부다페스트 시내에 전기 및 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각장의 잔여물은 철, 도로포장으로 재사용하고 있어 버려지는 것에서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눈에 띄어
- 임실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종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효율적 감량을 위해 남원, 순창과 연계한 광역 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계획은 고무적임



[ 시설 전경 ]



[ 방문기념 ]

□ 기관방문 : 국회의사당 및 부다페스트 도시보존관리청

- 도시건물/환경 보호부
  - 환경 및 건축 가치보호 평가
  - 건물/환경 유지 및 유해물 제거 보조금에 관한 협정 및 결론
  - 도시 이미지 부합여부에 관한 모든 건설 권한 절차

○ 도시 개발부

-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결정 : 도시개발 개념, 자본 통합 도시 개발 전략 공간 개발 개념 등 수도에 관한 의사 결정

○ 도시 계획부

- 부다페스트시 구조 계획 및 새로운 자본 도시 구조 계획
- 창조를 위한 수도권 계획 정책

○ 부다페스트의 대표적인 건물중 하나는 헝가리 정치사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건물이다. 1854년에 축성된 이 건물은 헝가리 정치사와 함께 하고 있다. 길이 268미터 폭 118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의회건물이다. 건물에는 27개의 첨탑으로 장식되어있고, 건물 중앙에 있는 돔은 96미터이다. 헝가리의 역사만큼이나 헝가리가 소련의 체제에 예속되었던 1945년부터 1989년까지는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단지 공산주의자들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유럽 중에서 가장 먼저 헝가리가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의회건물이 헝가리 의회정신과 투쟁, 민주, 자유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헝가리는 단원제 의회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 건물을 독차지하며 의회로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 주요 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답사

---

**어부의 요새**

---

○ 왕궁 언덕의 동쪽에 우뚝 서 있는 네오 로마네스크와 네오 고딕 양식이 절묘하게 혼재된 건물로, 1899년에서 1905년 사이에 지어졌다. 헝가리 애국정신의 한 상징으로 19세기 시민군이 왕궁을 지키고 있을 때 도나우강의 어부들이 강을 건너 기습하는 적

을 막기 위해 이 요새를 방어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중세에는 어부들이 도나우강에서 왕궁 지구에 있는 어시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사용되었다. 동양적인 색깔이 짙은 고깔모자 모  
양을 한 일곱 개의 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건국 당시의 7부  
족을 상징한다. 전체가 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얀 색의  
화려한 성벽과 마차시교회까지 뻗어있는 계단이 아름답다.

---

### 겔레르트 언덕

---

- 해발고도 220m. 부다지구의 도나우 강변에 있다. 언덕 바로 북  
쪽에 있는 옛 왕성의 유적과, 도나우강(江) 동쪽 기슭에 펼쳐진  
페스트 지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뛰어난 곳이다.  
옛날에는 케렌 언덕이라고 불렀는데, 11세기에 이 언덕에서 전  
사한 성(聖)겔레르트를 기리기 위해 개칭하였다고 한다. 정상에  
는 19세기에 쌓은 오스트리아의 성터와 1945년 부다페스트 해방  
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상(像)이 있다.

## ◇ 시사점

- ⇒ (도시경관) 헝가리 당국은 896년 건국을 기념하고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이슈트반 성당 등 건물최고 높이를 96m까지 제한하고 있었다.
- ⇒ (환경정책) EU의 합의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의 13%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 의무. 의회는 08년 4월 '2008 ~ 2020년 에너지 정책'을 채택. 국가폐기물관리계획에 따른 발생폐기물의 50% 이상 회수 목표.
- ⇒ 우리나라에서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오던 쓰레기소각 시설을 도심지에 세우면서 쓰레기 소각장의 외장을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모델로 독특한 외관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임실군이 적극 추진해야할 모델이라 생각됨

## 4 플리트비체 (오스트리아)

### □ 기관방문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관리국

- 국립공원의 역사 : 선사시대 이후 1000BC에 트라키아인이 이 지역에 거주가 시작
- 국립공원 내부의 지형 : 16개의 호수와 폭포로 이루어짐
- 트래킹 코스 (산책경로) : 10가지 경로가 있으며 국립공원 내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이 다름
- 서식하는 생물 : 환경이 잘 보존되고 광활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조류는 120여종이 있음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자그레브(Zagreb)와 자다르(Zadar),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약 19.5Ha에 해당하

는 면적의 숲으로 이루어진 이 국립공원은 곳곳에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90여개의 폭포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약 18km 길이의 인도교는 개울 위를 지나기도 하고, 개울이 인도교 위를 지나 얇게 흐르기도 하여 매우 상쾌한 산책로를 형성하고 있다.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보존을 위해 내부의 모든 인도교, 쓰레기통, 안내표지판 등을 나무로 만들었고, 수영, 취사, 채집, 낚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애완동물의 출입도 막고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그 크기가 매우 커 구석구석을 자세히 보려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공원이다. 하지만 근처의 대도시 자다르나 자그렘에서 하루 동안 들러서 보아도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봄철에는 풍부한 수량의 폭포의 웅장함을 볼 수 있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우거진 울창한 숲 속의 신비로운 호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을철에는 사람이 적어 고요한 분위기와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사시사철 매력 있는 곳이다.
- 이 국립공원의 호수는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으로 나뉜다. 상류부분에 위치한 백운암 계곡의 호수들의 신비로운 색과 울창한 숲의 조화가 가장 신비로운 장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류부분에 위치한 호수와 계곡들은 그 크기가 조금 더 작고 얇으며, 나무도 작아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대부분의 물은 Bijela와 Crna (하얀과 검다는 뜻을 갖는다.)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며, 모든 물줄기는 Sastavici 폭포 근처에 있는 Korana 강으로 흘러 나간다. 국립공원 내부의 방대한 양의 물은 물에 포함된 광물, 무기물과 유기물의 종류, 양에 따라 하늘색, 밝은 초록색, 청록색, 진한 파란색, 또는 회색을 띠기도 한다. 물의 색은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비가 오면 땅의 흙이 일어나 탁한 색을 띠기도 하고, 맑은 날에는 햇살에 의해 반짝거리고 투명한 물빛이 연출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 외화 사상 최고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되었다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규모면에서는 이과수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작지만 신비감을 주기에 충분한 곳이었음

◇ 시사점

- ⇒ (유네스코 세계유산 효과) 공원의 유네스코 지정에 따라 공원 내 개발 및 인근주민들의 사유재산 개발까지 제약을 받고 있음. 하지만,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
- ⇒ (지역경제) 약5천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국립공원 내 고용인원이 약 8백명 정도로 지역주민의 공원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원내 식당, 숙박, 버스운영 등이 지역주민의 주 수입원임.

### □ 기관방문 : 블레드 호수 관리국

- 블레드호수는 알프스의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호수는 영롱한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는데 이 블레드의 아름다움에 반해 유명 인사가 자주 찾았을 정도로 유명하다. 호수의 최대 길이 2,120m, 최대 넓이는 1,380m이며 최대 깊이는 30.6m이다. 호수 주변은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산 주변이나 성을 포함한다.
- 호수가 근처에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한 호텔 빌라 브레드가 있다. 이 곳은 한때 유고슬라비아연방의 전 원수였던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별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각국의 국민을 영접하기도 했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인도의 간디라 간디, 북한의 김일성 주석, 영국의 찰스 황태자 등이 머물다 갔다. 그리고 조정을 즐길 수 있는 명소 가운데 하나로 1966년과 1979년, 1989년, 2011년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곳이다. 또한 블레드 성은 중세시대에 호수 주변에는 세워진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자 블레드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는 곳, 블레드 성은 1004년 독일 황제 헨리 2세가 대주교 브릭센에게 블레드 영토를 하사하면서 구축된 절벽 위의 중세 성이다 성은 1011년에 지어졌고 그 전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탑만 덩그러니 놓여 블레드 호수를 바라보며 있었다 중세 후기가 돼서야 더 많은 탑이 건설되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도개교가 성의 입구에 놓이며 완전한 요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1511년에 지진을 겪기도 하고 1947년 화재로 피해를 입어 건축가 tone bitenc에 의해 1951년부터 1961년까지 재건한 결과 현재는 로마네스크의 고딕양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성안에는 두 개의 뜰을 중심으로 각각 방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로 나뉘며

주거 뜰에는 예배당과 박물관이 있다.

#### ◇ 시사점

⇒ (자연보존) 개발을 할 때는 오염이나 공해가 전혀 없는 플레타나 배를 띄운다든지, 블레드를 이동하는 도로가 협소해도 블레드 성 주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음

⇒ (스토리텔링) 블레드섬 한 가운데 위치한 성당에는 3번 종을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종소리가 멈추질 않을 정도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어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음

## 6

### 할슈타트 및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 □ 기관방문 : 잘츠부르크 주정부

○ 잘츠부르크 고도보존법 : 잘츠부르크의 고도보존법은 잘츠부르크 역사지구(I 구역 : 구시가지, II구역:19세기 산업화 초기에 건설된 산업화 지역)보존을 위해 1967년 제정되었으며, 역사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유형의 법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최초로 제정된 법이며, 비엔나의 구시가지 보존을 위한 건축법, 그라츠(Graz) 고도보존법에 영향을 미쳤음.

- 고도보존법에 의해서 1,400 개 건축물중 약 1,000개가 특별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의 집행은 잘츠부르크 시 행정청 제5부 도시계획 및 건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현존 건축물 및 도시 외관과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심의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역사지구 보존기금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음

○ 전문가 위원회 :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현존 건축물 및 도시의

외관과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 위원은 잘츠부르크 시의회 2인, 주정부 2인, 연방 문화재보호국이 1인의 대표로 구성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동수의 대리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 심의회의는 격주로 월요일 오전 10:30부터 진행하며, 심의와 자문을 포함하여 연간 45회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건 이상의 자문을 수행하며, 매년 심의 및 전문적인 자문을 포함하여 1,000여건의 안전을 다루고 있음.

○ 역사지구 보존기금 : 역사지구 보존기금은 보호지역인 I·II구역 내에서 건물의 배치, 건물 구조의 보존과 도시내 거주공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도시기능의 유지 및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기금임

- 기금의 재정은 주정부와 잘츠부르크시가 6:4로 부담하며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고도보전기국)을 두고 있음
- 기금 특별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일반적인 보존을 위한 비용과 도시 외관 관리, 손상된 외관의 제거, 거주공간의 개선, 건축사적 발굴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 주요 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답사

### 할슈타트마을

○ 할슈타트마을은 호수 기슭 경사면을 깎아서 집을 지은 오래된 마을로 유명하다. 근처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산'이라는 뜻의 다흐슈타인산(3,800m)이 있다. '할슈타트-다흐슈타인잘츠카머구트 문화경관'은 슈타이어마르크주(州)·오버외스터라이히주(州)·잘츠부르크주(州) 등에 걸쳐있는 지

역으로 산·호수·마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호수마을은 고즈넉한 분위기다. 마을 한가운데 중앙 광장이 있고 광장을 둘러싸고 꽃으로 창을 단장한 세모 지붕 집들과 레스토랑들이 늘어서 있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예전 소금광산에서 나왔던 암염조각을 팔기도 한다. 소금을 캐던 녹슨 장비며, 마을의 오랜 역사를 알려주는 아기자기한 박물관도 작은 구경거리다. 마을 뒤로 돌아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흐슈타인 산에 오르면 광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장자크볼프강 호수는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등장하기도 했다. 겨울에는 스키 타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며, 시내 가운데 자리 잡은 장크트볼프강교회는 1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

## 모짜르트생가

---

- 잘츠부르크의 대표 변화가인 게트라이데 거리에서 진한 노란색 건물을 찾으면 된다. 모차르트가 1756년 1월 27일 태어난 뒤 17세까지 살던 집으로 모차르트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모차르트의 유년시절 작품이 탄생한 곳으로, 현재는 모차르트가 생전에 사용하던 침대, 바이올린, 피아노, 악보, 초상화,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많은 인기를 얻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

## 호엔잘츠부르크성

---

- 유럽에서 가장 큰 중세 성의 하나로 뮌히스베르크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잘츠부르크의 상징. 1077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1681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으며, 온전히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중부 유럽 최대의 성으로, 성 내부에는 대주교의 거실이었던 ‘황금의 방’, 무기와 고문기구 등이 전시된 성채박물관 (Carolino Augsteum), 1502년에 만들어진 거대한 옥외 오르간 ‘잘츠부르크의 황소’ 등이 있음

#### ◇ 시사점

⇒ (다양한 마케팅 활용) 잘츠부르크는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 장소인 미라벨정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바이올린 숭배, 다양한 악기,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 거리음악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거리 이미지) 도시의 중심가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된 간판은 찾아볼 수 없어 전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도시의 외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인해 도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격조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갖게 함

\* 임실군의 치즈형상을 통한 광고물 정비를 제안

## 7 로텐부르크 (독일)

### □ 주요 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답사

#### 로텐부르크시청

- 로텐부르크는 전체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한해 100만 명에 이를 만큼 광광지로 매우 인기가 있다. 중세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동화 같은 거리, 관광객들이 좋아할 흥미로운 박물관과 상점들이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

사하는 곳이다.

- 시청사는 고딕양식을 상징하고 있으며 붉은색 기와지붕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마치 동화 속의 세계처럼 펼쳐지며 독일의 전통풍광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약 4할 정도가 파괴되고 소실되었으나, 완전하게 중세도시를 복원시켜놓은 곳으로 오랜 시간을 뛰어 넘어 근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중세의 보석'이라 칭송되는 고도이다.

## 마르크트 광장

- 원래는 1535년까지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으나 16세기에 상업이 한창 발달하면서부터 비로소 현재와 비슷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육류 가공식품, 가구, 가정용품 등을 진열해 놓은 사이로 일요일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블록 위로 걸어 다니며 쇼핑을 하는데 이곳이 바이마르 시에서 가장 변화한 곳임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이 광장을 벽처럼 둘러싸고 있던 아름다운 르네상스 식의 건물들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광장 북쪽에 있는 호프 약국(Hofapotheke)만은 전과 같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5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IV. 시사점

###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중요성

-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조망을

통하여 동물 또한 지구상에 함께 존재할 이유를 알 수 있음

(3,000km가 넘는 긴 운행 시간 동안 로드킬을 볼 수 없음)

- 고속도로변 대단위 풍력발전기, 경관, 쓰레기통, 공원 녹지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 2. 한반도 통일의 꿈을 이어줄 EU 통합 확산

- 유럽은 국가간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 피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서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유럽국가 대통합을 이루고 있음(당초 12개 국가에서 현재 28개국 가입하고 있으나 향후 33개 국가 전부 가입으로 통합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톨게이트 하나로 왕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간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

## 3.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다양한 마케팅으로 관광활성화

- 동유럽은 전체가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연과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법제정 등 문화재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지역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문화역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원형보전과 복원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프라하 성을 대통령 관저로까지 사용하는 등 역사유적지를 변형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유명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관광지를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장인정신으로 이어 내려온 전통 브랜드상품의 대량 유통 판매, 천혜자원을 선택적 개발이 세계 관광대국으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 4.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

- 동유럽의 여러 도시의 옛 유적은 단순히 건축물이나 역사적 배경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삶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아바타'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동상을 한부분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와 성당의 종을 3번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등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 5.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교통 시스템

-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고 순환도로와 일방통행제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입체적으로 잘 활용하여 교통체증이 거의 없음
- 시내를 양측 원형으로 2개 노선이 도심을 통과 운행하고 지하철이 4개 노선과 보완노선이 주요지점으로 운행되는데 이것이 도심에서는 중복환형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하철과 전동차, 순환버스가 시내버스와 연계된 거미줄 같이 운용

하고 있어 자가용 운전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대중교통 승차권도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휴식공간을 시내도처에 조성하여 시민 정서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

## 6. 기타 사례들

- 단순한 조명으로 화려한 조명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야경과 사람들의 눈을 괴롭히는 네온사인 휘황찬란한 간판보다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
- 왕궁, 성곽 등 유적지 주변의 다양한 야외 음악회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의 생활화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 동유럽 5개국 연수를 통해서 도로에 전봇대와 전선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곳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어 유구한 역사문화 유적을 더욱 돋보이게 함
- 도심지역의 공공시설은 물론 주택에도 외부 베란다나 창가에 꽃화분을 장식함으로써 도시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었음
- 차량보다 사람위주의 교통 흐름과 시설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를 가꾸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벽면의 낙서도 보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예술이 되거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환경을 위해 지워야 할 대상임 (그래피티)

## V. 정책제언

###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제안

- 우리 지역 도로공사 시 생태통로에만 그치지 않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도로 인접부근에 경계망을 설치하여 빈발하고 있는 로드킬을 없애고 동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
-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도심에 녹지 공간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대체에너지 활용, 환경정화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안

- 국가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역사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역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봄
- 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오스트리아의 쉐부른궁 같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각 문화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임실군의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여 관광 상품화할 필요가 있음

## 3.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우리나라에서 방송된 ‘프라하의 연인’, ‘꽃보다 누나’ 등을 동

유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여 한국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도 오염되지 않고 경관이 수려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를 근간으로 영화, 방송미디어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야 함

- 동상을 한부분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와 성당의 종을 3번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등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듯이 우리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스토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번쯤 다녀가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야 함
- 특히, 한국 치즈의 원조의 산 증인인 지정환신부 등 다양한 자원(경관자원, 건물자원, 종교자원, 문화재자원 등)과 마을에 내려오는 민담, 전설 등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작품으로 만들도록 함

#### 4.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교통 시스템

-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도시 및 교통문화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의식을 전환하고 시민이나 관광객이 편하게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및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장기적으로 문화유적 및 관광지부터 전선, 케이블을 지중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면 우리의 자랑 문화유산이 더욱 돋보이게 하여는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임
- 주요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순환버스와 시내버스와 연계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가용 없이도 편히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공간을 승강장 주변 등 시내도처에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객을 배려하였으면 함

## 5. 기타 제안사항

- 동유럽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건물 건축 시 후손들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고마워할지 까지 판단하면서 건축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하고 수백년 후 후손들에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개발에 임하여 함(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100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지어야함)
- 개개의 상점들이 눈에 더 띠려고 간판을 화려하고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전체 미관을 해치면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간판정비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시행 할 수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 임실의 경우 치즈 모양을 형상화한 도로명 주소 간판, 관광 안내판 등은 우리 고장만의 특색있는 디자인 도입이 필요함.
- 유적지 주변에 품격있는 조명과 다양한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 블레드 호수, 할슈타트의 사례와 같이 옥정호, 성수산, 섬진강 등을 활용, 생태, 문화, 관광자원간의 연계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한 관광상품화를 지향
- 부다페스트의 사례처럼 폐기물 발생을 억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 회수, 처리하는 자원의 순환망 구축 필요 ⇒ 우리군 특성에 맞는 자원화, 군민의 폐자원에 대한 인식 개선, 동부권(남원, 순창, 임실) 공동선별시설 확충

## VI. 연수후기

### ○ 연수 사진



- 이번 연수에는 문화관광을 체험하고 체득하여 우리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콘텐츠를 접목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의원들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화합과 정보를 교류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우리군의 발전적 요소는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 속에 연수를 시행하였음.
- 앞서 제안사항으로 언급하였듯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업개발 보다는 자연과 유적지를 보존하면서 자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개발시에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많이 보고 경험 해 볼수 있도록, 직원들의 국외 선진지 방문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문화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잘 사는 선진국 일수록 휴양시설과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가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군도 문화보전, 생태보전과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 육성 할 필요가 있음.
- 짧은 일정에 6개국 방문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개인)를 버리고 우리(단체)를 먼저 생각하고 협조 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군 7대 의회가 화합되고, 단결된 결속력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과 군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실천 할 것을 다짐해 봄.